

# 보도자료



보도 희망일	제한없음(즉시)
문의	행사진행: 총무과 수상자 선정: 학생(학생지원과)
	홍보팀 880-9072, 5054

배포일: 2022.10.14.(금)

## 제76주년 개교기념식 개최

- 서울대학교는 2022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에서 제76주년 개교기념식을 개최한다.
  
- 오세정 총장은 기념식에서 “추격의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고유의 학문을 세우고 우리 고유의 대학을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 며 “변신과 혁신을 위해 스스로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전문 첨부1】
  
-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22. 10. 14.)
  - 국민의례
  - 표창: 장기근속 교직원 및 봉사 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유관기관 직원

- 개교기념사(오세정 총장), 축사(김중섭 총동창회장), 축사(유기홍 국회의원)  
축가, 교가제창

[붙임] 개교기념사(총장), 축사(총동창회장)

## [붙임1] 제76주년 개교기념사(총장)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직원 동문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서울대학교와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서울대학교가 개교 7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날입니다만, 총장으로서 맞는 개교기념일의 감회는 무거운 책임감입니다.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국민과 동문들께 큰 고마움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곳곳이 학업과 연구, 그리고 본연의 책무에 몰두하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의 위세는 약화되고 있습니다만 팬데믹은 세상에 불연속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가속화된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은 대학에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격감은 국내 대학에 다가오는 분명한 도전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러한 요구와 도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민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사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도 선진국 대학들을 벤치마킹하여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학교도 성공적인 추격의 신화를 이뤄냈고 이제 세계대학순위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의 도약은 어렵고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대학교가 추격의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고유의 학문을 세우고 우리 고유의 대학을 만들기 시작해야 합니다. 학문은 보편적이지만, 학문의 대상과 방법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에서도 고유 모델을 구축하고, 대학도 고유 모델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변신과 혁신을 위해 서울대학교는 스스로 뼈를 깎고 살을 베어내는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난제와 닥칠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은 중장기적인 영향을 예측하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아쉽게도 2007년 이후 장기발전계획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일상에 치였고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가 법인화되는 등 대내외의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일을 하느라 꼭 해야 할 일을 놓친 셈입니다. 부끄러움을 실토했습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15년 만에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은 2040년을 바라보며 교육, 연구, 학생지원·복지, 국제화·사회공헌, 멀티캠퍼스, 재정, 대학운영체제 등 대학 운영의 전 분야를 검토하고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85명에 이르는 위원들이 100회 이상의 모임을 갖고 외부 컨설팅도 병행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창의·융합 교육 혁신을 위한 학과 간 장벽 허물기와 융합형 학사과정 도입, 자율성과 공공성을 추구하는 입학 모집단위 광역화와 전공 선택 유연화, 졸업생의 재교육과 경험 전달을 위한 개방형 순환대학 모델 구축, 기숙대학(Residential College) 도입, 인류 난제 해결, 질적 국제화 지향, 지역-산업-대학이 연계하는 R&D와 창업 생태계 구현 등과 같은 실행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은 미사여구로 포장된 공허한 말잔치가 아니라 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한 실천강령이자 자기선언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실천입니다. 앞으로 중장기발전계획을 밖으로 드러내고 실행여부를 검증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대학교 구성원 여러분,

지난 여름, 기록적 폭우로 전국 곳곳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침수되었고 실험시설과 장서들이 젖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전기와 통신 불통으로 교육과 연구 그리고 행정이 마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밤중 연구실을 지키던 대학원생들은 물을 퍼냈고, 교직원들은 밤샘을 마다하고 복구 작업을 계속하였으며,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는 300여명에 달하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였습니다. 물에 젖은 도서관 장서를 한 장 한 장 닦고 말리기 위해 지금도 2백여 명의 학생들이 수작업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다시 한 번 빛났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구성원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의 방향과 모범을 보여주는 것 역시 서울대학교의 역할과 책임임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도약은 문화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넘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서울대학교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원을 설립하였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대학의 멋이자 권리입니다. 서울대학교 문화예술원은 구성원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나아가 K-Culture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문화관은 리모델링될 것이며, 옛 파워플랜트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캠퍼스에 난방을 공급하던 시설이 이제 캠퍼스에 문화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광장으로 재구성된 정문은 벌써 명소가 되었습니다. 변모하는 캠퍼스에서 우리는 서울대학교의 가능성과 미래를 봅니다. 캠퍼스는 대학을 담는 그릇입니다. 수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도 기능적 복구를 넘어 수해의 근원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생태적 복원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이 꽃피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캠퍼스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서울대학교 학생 교직원 동문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서울대학교와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 이제 곧 서울대학교 제28대 총장이 정해집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가 생각납니다. 운동회의 백미는 계주였습니다. 바통 주고받기가 이어달리기의 승패를 가르듯 자랑스러운 서울대의 전통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개교기념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 10. 14.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 [붙임2] 제76회 개교기념식 축사(총동창회장)

존경하는 오세정 총장님,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교 교직원과 선후배 동문 및 내외 귀빈 여러분.

44만 동문을 대표해 모교 개교 76주년과 개학 1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대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서울대 동문들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또한 앞으로 대학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과 교직원 여러분,

우리 서울대학교는 구한말 1895년 법관양성소 설립 등으로 개학한 이래 1946년 각 단과대학들을 통합하여 국립서울대학교로 개교하였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 말엔 ‘국립대학법인’ 화를 이뤄 오늘에 이르는 등 각 시대상을 반영한 능동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입지를 굳건히 해 왔습니다.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도 모교가 흔들림 없이 오로지 지성의 전당으로서 학문의 기본을 굳게 지켜옴으로써 본연의 위치를 견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역대 총장님들과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재학생, 동문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2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모교의 뛰어난 위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곳은 남겨둬야 한다며 세계 대학 중 유일하게 도서관과 기숙사를 정상 운영하고, 오갈 곳 없는 국제 학생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직 감염병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캠퍼스가 활기를 되찾기까지, 오세정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얼마나 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올해 처음 QS세계대학평가에서 29위라는 역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2040년까지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고 대학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서울대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비판 어린 시선도 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 겨레를 넘어 세계의 대학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믿습니다. 장기간 모교에 헌신한 공로로 오늘 공로패와 표창장을 받으시는 교직원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서울대인 여러분,

우리 서울대인은 사회에 보답할 책무가 있습니다. 개교기념일에 우수 봉사활동을 펼친 재학생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것도 그러한 활동이 바로 서울대의 품격을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봉사에 매진한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회 공헌을 독려하여 서울대인에게 봉사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를 모토로 44만 서울대 동문이 나라와 사회 발전에 참여하고 기여함으로써 보람을 느끼는 총동창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총동창회 산하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발족해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서울대 글로벌사회공헌단과 협력해 세계를 무대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동창회는 여러 동문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32억원의 장학금을 후배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 비하면 부족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인재들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동문이라도 더 연결하고, 한 번이라도 모교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곧 모교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으로 동창회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10월 16일에는 가을빛 짙어가는 캠퍼스에서 3년 만에 오프라인 홈커밍데이를 개최합니다. 서울대인에게 즐거운 추억을 안겨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모교에서 학교의 상징인 정문을 산뜻하게 새단장해 주셔서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교의 개교를 축하하며, 모교와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4.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김 중 섭